

聖句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發行所
基督新報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區榮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 25 2623番
編集人 吳 允 台
發行 華 田 榮 澤
主 華 田 榮 澤

社說

苦難에直面한態度

오늘날 우리 민족과 나아가서는 세계인류가 당면한 사태에 대한 우리의 관찰은 여러가지로 볼수있다. 낙관적인 관찰도 있는 동시에 비관적인 태도도 있다. 우선 우리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매우 비관적인 판단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못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한국전쟁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시키고있는것과 무엇보다 미국의 군사력을 든든하게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비관하는 편은 미국은 전쟁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과 한국에서 군사들 군우어가려는 방침이 있다는것과 우리 반도가 지리적으로 불리한 점과 미국의 군사력도 절대적 우세하지 못하다는조건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 지도자와 기독교인은 어떠한 태도를 가질것인가 우리는 지난번 호 본지에서 우리의 영구적인 대책으로 사람의 정신과 사상의 실행을 말하였거니와 우리는 현실적인 사태와 정치적인 동향만 보아서 영향을 받고 선악간의 태도를

가지는 것보다. 먼저 신앙을 가지고 과거 역사상에 나타나고 또 금일의 정세와 정치적인 동향을 위해서 조종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여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가질 것이다.

國立國會圖書

基督教信仰이徹底하면
物質宗教(共產主義)에勝利한다
獨逸福音教會디監督談

美國基督教連合會總會
新議長에 마-린氏選出

세계로 알려진 이데오로기라는것은 물질종교(物質宗教)라고할것이다. 그리스도교회의 초기전도이래 오늘날에는 더욱 우리속에 깔고 달려드는것이다. 종교라는것은 더욱 강력한 종교로서만이 정복할수있는것인데 공산주의라는 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정복할수있다.

아메리카基督教교회에서는 지난十二月초순에 제二回총회를 열리기로 된것인데 지금까지 두 리二年前에 온갖 곤란을 무릅쓰고 헨리-록스-세일氏(聖公會)를 의장으로二十九교파에서 三千三百萬의 교회원을

이런데는 의장(議長)에 감리교장목 헨리암·C·마-린氏가 선출(選出)되었다. 그리고 이 총회에는 이번의 국부장관인 헨리암·C·마-린氏와 헨리·가빈·로치上院議員等이 연설을 하였고 西部독일福音敎會 오토·디베리우스總督도 참석 하였다.

회람正敎加盟準備

그리스찬·사이언스·모나하! 그리스도교의 사역에 의하면 회람正敎會는 금년에 아메리카基督教會에 가입할것이라한다. 회람正敎會는 이슬람 왕교정이 교파였으나 기독교회의에 가입

의 정세가 불리한 점과 한국의 위기를 말하는 편도 있고 한편에는 동일이되고 당분간이라도 전쟁이 끝난다고 믿는 일도 있다 그리고 항간에는 소위 정감독을 믿는 따위의 허무맹랑한 말이 상당히 유력하게 돌아가고 있는것도 결코 무시할수 없는 현상이다.

[illegible]

(解説)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학의
국회에서 매을과 인신매매금
지안을 제정하였다고 하되
여기 대학의 시비가 많은
모양이다.

○ 다음에 유엔군 점령의덕택
으로 생긴 혼란아가 악이
십만명이 되고 금년의 인학
기가 되어 또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된 모양인데 이한것
이다 남의 일만이 아니오
우리에게도 닥친 문제라고
생각할 때에 자연 눈발이
제푸러진다. 최근 신문 지상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의 혼
혈아의 수가 三五五名이라는
것이 발표되었거니와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을는지 모르고
남도덕이 업하고 정조파협
이 높은 우리 민족에 있어
서 이만해도 적지아니한 수
자다 그리고 소위 「양갈보」
의 문제는 우리 자녀교과서
에 큰 문제요 어구나 피난
민 중에 교생에 시달리다 못
해 마침내 이 길로 떨어지
는 여자가 적지않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이방면에 구
호의 손을 펼치는 없는가.

亞細亞基督者の貢獻期待

革新段階의 東西文化

大韓 金賢滋幹事談

大韓女子基督教青年會聯合會
 幹事部(學生部) 金賢滋氏
 一年半의 미국유학을 마치고 지난十二月 空路로 귀국하였다. 東京에 일주간 머물러있었는데 더욱이 印度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기독교 제3회 청년대회에 참석하였던 관계로 일본 각 관계단체의 交歓會合等분주히 지났다. 以下는 金氏와 日本YWCA에서 韓國한 이야기의 要旨이다 (文責 記者)

아메리카의 香港하는 霧國氣에서 공부하고 印度青年大會에 참석하기 위하여 아메리카基督教青年代表들과 함께 太平洋을 건너 아메리카 新州들이 살던 유-롭大陸을 거쳐 印度에 왔는데 太平洋을 건너지 아니하고 유-롭大陸에서 스이츠랜드 제네바와 韓國과 비슷한 정치사정下에 있는 獨逸等을 보았다는 것은 今後 아세아문제를 보아가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

△ 金氏에 印度에서 개최되었던 기독교청년대회의 의의도 沈滯狀態의 구라파를 올라루 인식하면 절반은 알수가 있을 것이다. 아시아인이 유-롭의 각국은 과거의 기독교와는 분리할수 없는 국가들이고 현대에도 그 전통과 유산을

공부하게 가지고있는 국가들이 많이있는만큼 기독교뿐만 아니라 정치 文化 社會에 있어서도 그들이 주목되고있다. 그러나 불길같이 이러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아메리카에서 구라파를 거칠때에 느낀 것은 더욱이 신생의 원기가 왕성한 아세아까지 와서 소감을 말한다면 유-롭의 그리스도신도들은 참례상례에 있어보였다(이말은 나의 독단적 견해는 아니라)

△ 세계基督教第三回青年大會는 물론 준비위원들의 노력으로 印度에서 개최되었으나 신흥 아세아에서 개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五十餘國에서 三百名의代表를 참가 시키었는데 그 半數이상인 아세아대표들이었다 그것은 아세아에 基督教의인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침체한 구라파와 세계를 상대로 하고 이러나는 아메리카의 기독교인들이 오래 잠자다가 覺醒하는 아세아의 소리를 듣지 듣고 예수그리스도앞에서 새로운 명령 주「그리스도는 解答이라는 主題대로 그 말씀에서 未來世界의主人 公青年들과 기탄없이 胸襟을 터놓고 협의하는 것이었다

世界基督教青年의任務

(도라방코아會議問題)

도라방코아會議라는 것은 지난十一月十一일부터 두주일간 세계 五十개국에서 기독교청년대 표 三百名이 인도(印度) 南쪽에 있는 도라방코아라는 곳에 모였던 제3회 세계기독교 청년회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열명의 기독교청년 대표가 참석하게 되었던 것이었으나 유감스럽게도 본국에서 직접으로는 한사람도 못하고 아메리카에 유학을 하고 도라오던 여자기독교청년회 학생부간사 한분만 참석하였다. 그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문제와 상당히 논의되

었다는데 그런 기회에 고민하는 세계 기독교청년들에게 좋은 증인으로 이바지 못한것은 대단히 섭섭하다. 우리가 대립된 현대 세계에 말로 다 못할 회생을 하고있음이 사실이나 세계평화실현에 공헌이 못된다면 그世界的意義를 잃을가 두터다워 하는바이다.

필자는 이제 우리나라문제와 많이 논의되바 있었다는 도라방코아회의의 보고를 보고 드론데서 몇가지만 기록하려한다.

우선 도라방코아라는 곳에 세계五十개국 三百명 기독교청년 대표가 모이게된 이유를 말할

△ 宗教史上으로 볼때에 아세아에는 참 종교적인 것이 있었기때문에 종교적인 아세아에 물어보자는 것이다. 印度는 敎가 이러한 나라이나 이번 대회가 열린곳은 인도마(예수의제자)가 傳道하려한던 곳이라하여 역사깊은 교회 가지고 그 이웃에는 천주교 불교 유교의 나라들이 있으나 다만 現代文明과 文化의 새웃을 입지못한것뿐이다. 現代文化의 國단에서 危機信號를 발하는 유-롭이 아세아에 주목한다는 점에는 우리가 생각할문제가 있는것으로 본다.

△ 이러한 관점에서 韓國과日本의 관계를 좀더 생각하여 보자. 우리는 좀더한 생각으로 민족心에만 고정할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윤곽도 없는 四海同胞主義를 고지하려는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으

受刑者에게 福音을傳한 日本聖書協會골포스타

山口瀧藏牧師

日本聖書協會 골포스타로 활약하는 山口龍藏牧師의 對馬島嶼岐方面 韓國人傳道에 관한



福音을 傳하는 山口牧師

필요가 있다. 도라방코아는 원五十年경에 도마가 와서 전도를 시작한후 그 지방 人口의 七할五부가 그리스도인인데 푸로레스탄트는 南印度合同敎會 산하에 一致協力하여 활동하고 있는 점에 세계기독교운동(에큐메니즘 유-부)에 적임자로 선정된 것이었다. 그곳에 또한 가지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심하다는 것인데 기독교청년들이 그곳에서 더욱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보고에 의하면 기독교청년들 중에서 그곳 공산주의청년들과 대담을 감행한자도 있었다는데 그 기독교청년들은「성서」의 가르치는 진리에 굳게서서 사회 현실 문제라기에 공산주의자 보

로써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피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용서하고 새로운 형의와 권고와 협력의 있어야한다. 日本은 過오를 범우치고 신흥 아세아국가들의 국민과 손을 잡아야할것이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이에서 중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하여야할것이다.

△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이번大會에 기독교청년대표를 보내지 못하였는데 그 결과 여하는 속제다. 다만 우리도 世界的視野를 가져야할 것과 파도기의 좁은 생각을 청산하고 우리들의 진상과 의견을 구체적으로 조리있는 案으로 지어가지고 세계적인 회합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세계는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우리들의 연사의 한가지 한가지를 검토하려는 현상이다.

사실은 이미 보도한바와 같거나 關東地方刑務所에 千餘名 韓僑가 收監되어있다는 말을本社記者를 통하여 듣고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때를 앞둔바라 하여 千餘을 가지고 허무소를 방문하여 전서전도를 하며 위문하였다는 귀한일이있다.

山口牧師는 그事實에對하여 전도일지를 뒤적거리며 다음과같이 다

다 더욱 용감이 싸우자」고 발언을 했다.

會議에 있어서는 現實問題와 교회와 일치형식이 강조 되었는데 우리대표가 감명이 깊었다는 비자트·후트博士(WCC)는 『地上天國』문제를 말하고 있고 일본대표들을 감명 깊게 하였다는 말린·니델라博士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믿음에 굳게서서 박해에도 변함없이 굳세게 싸우자고 강조하였는데 그 모다가 감칠 같이 심금을 울렸다한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간증자들의 말은 聖經말씀研究에 까지 관련을 가진 이야기였고 현실문제에는 몸바친 전문가들로서의 여러 저런 제형으로 증거를 세



法皇・間諜・大統領

로마 카를의法皇은 아메리카 대통령에게...

한국의 독립한후 하도속히 귀국하려던 사람들이...

十二月二十六日 東京予知所를訪問하여...

會議의 특징은 과거와같이 어느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

孤兒救濟物資十三屯

아메리카 미네소타州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폴에 있는...

六十四歲에離婚

전원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뉴-멕시코라는...

九十九卷과 요한복음一百十卷을 전달하고...

다음은 久米演說少年院에 마가복음四卷과...

東京通信

(제四面에서 계속) 고나가면 현재 아사야에서 당한 위기를...

清教徒的訓練!

기-前 英駐米英國大使夫人은 "清教徒인들을...

은 일본 국민이 좀 더 순수하고 기독교정신이...

지금으로부터 약 五十年前에 남아메리카에서...

이것이 우리의 성상을 세운일이 있지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알니 다. (主筆)

新約(講解)

使徒行傳

求道者

- 本書의 性格 사도행전은... 1 제일교회에... 2 에루살렘교회... 3 제이교회... 4 제삼교회... 5 로마교회... 6 에페소교회... 7 마르티니안교회... 8 안디옥교회... 9 아고보의교회... 10 에베소의교회... 11 트라르네교회... 12 에베소의교회... 13 에베소의교회... 14 에베소의교회...

說 教



內的生活의充實

名古屋教會牧師

金德成

예수님의 교훈은 언제나 그 내심(內心)과 동기(動機)를 주시하신 것을 신학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우리는 외면(外面)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이것은 선한 것이오 저것은 악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을 바른 것이오 저것은 틀린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악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불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니 나는 너희게 일하라 하였으니』 나는 너희게 일하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벌써 간음하였나니라 하시고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벌써 살인하는 죄를 범한 것이라 하시며 예수님의 교훈은 언제나 그 사물의 타난 결과보다도 그 동기에 하로써 판단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물을 바쳐 불살을 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무의하다(고후 13:3)고 말씀하였다. 그 구제의 동기가 사랑과 또한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내물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정신에서 나오지 않고 그 구제를 통하여 자기의 명예를 얻으려는 불纯正 정신에서 나왔다면 사람에게는 굉장한 나쁜 것은 하나 남보시기에는 일품

로 남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사업도 낫고 혹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 든일에 우리 마음속에서 선의(善意)를 갖이고 좋은 동기에서 출발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우리는 진정으로 내적생활의 충실함을 기하는 데서 그리스도의 뜻에서 점철되어 가지는가? 표면에서 나타난 것으로 신앙의 표준을 삼으며 외면에 보이는 것으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내용이야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리라.

예를 든다 기독교의 대원수(大元帥)인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적인 것이라 리서인의 타락도 이해되었는 것 이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 운동은 아무리 웅장하고 할지라도 천국(天國) 운동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고로 우리는 피차에 근면하여 내적생활의 충실함을 위하여 일함으로써 우리 교회에서 청년 남녀 중에서 불의를 때려 팔을 걷고 부르는 정 의의 용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바이다.

傳道欄

하나그대인민가운데

세상에는 자기의 힘기와 육신의 힘을 믿고 제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함부로 하고 혹은 웬만큼 재산과 수완이 있는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정신없이 세상을 지내는 자가 있고 혹은 웬만큼 학식이 있다고 혹은 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소리를 치면서 자기의 죄라든지 내세의 심판은 생각도 하니 하고 뽐내고 있다가도 그런 사람을 이 갑자기 병이 난다든지 무슨 큰 재난을 당하든지 큰 곤경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구원을 빌게 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니 이것은 그런 위급한 때에 사람의 마음은 회개하고 본심으로 돌아온 것이다.

평소에는 예뻐왔으므로 지내 가면서 '아! 예뻐왔고' '내 배 내 배' 하고 유하고 비웃는 사람이 제 자신이나 후 제 병이 급하면 혹은 목사를 청하고 혹은 술자머니 예배당에 가서

香氣

불꽃

어떤 때에 천야만 한 절벽이 있고 그 밑은 폭포수 한 바다인데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식물들 채집하려는 사람이 그 지경에 사는 한 아이를 불러 가지고 줄을 내리고 불을 켜 줄이니 불을 내리고 내려가서 그것을 가져 오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유혹을 생각할 하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

위에 앉은 예 속에서 우리는 몇가지 좋은 습성이 거기에서 배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권위 있는 자료에 상의하는 것. 글자의 회를 잘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보통 일이다. 어른 어린이 할 것 없이 백과사전 기타 권위 있는 문헌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어떤 클라쓰에서 카를릭의 신앙 미사말을 하고 있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책을 이용하여 알아내는 것이요 교사에게 묻든지 혹은 미사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었



校座學講 教授法 鑑賞과論議 (7)

魯安理

나는 그들의 의논 혹은 거기에서 나온 그들의 의견이나 결론을 변명할 생각은 도무지 가지지 않으나 다만 어떤 디스션에서든 여기저기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예를 들었다. 물론 교사가 미리 잘 계획할 것을 생각하고 자기도 세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함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어린이들 성서사전을 복음서대조표등을 사

용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덕으로 된 것이었으며 또 예수의 생활 및 시대에 관한 재미 있는 서적이 그들에게 사용된 경과는 어떠하였던가? 이러한 그림이 도서관에 있다면 지 아무 잡지 몇호에 있다는 지도 목사로 하여금 학생들을 상대로 주제 하며 미리 그들의 문제에 관한 준비를 하여 가지고 그들을 기다리게 한 것은 모두다 교사의 숨은

주변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는가? 교사는 항상 다음 집회까지 미리 알아 들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래서 친히 문헌들을 읽어서 의논 주제에 상관 있는 부분에 표를 하여 두었다. 기타 자료도 다 그렇 게 수집하였다. 사실은 교사가 학생들보다 훨씬 더 연구하였 다.

그것을 하는 일도 흔히 있는 일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예전에 영국에 '발레'라는 학자가 배를 타고 먼 나라에 가는 길에 갑자기 풍년이 몹시 일어나서 배가 금방 뒤집혀 질러고 하는 위험한 지경을 당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래 신앙심이 없지 않았으나 하 나님이 있을리가 있느냐 하 나 이런 없다고 고집하는 자였는데 이 지경이 되고 보니 별수가 없는지라 무심중 '하나님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하였다. 다행이 중남이 잔잔해지고 배는 무사히 목적지인 항구에 닿았다. 있었는데 그 뒤에는 '발레'의 무심론은 육지에서든 그릴듯 하지마는 바다에서는 그렇지 아니었다'는 소문이 세상에 퍼져서 되었다고 한다.

이모양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일을 비웃고 장한채 하 는 사람들도 대개 육지에 있 을 때나 날씨 좋은 때 제손에 돈이 있고 형편이 편치 않을 때 무뎌하고 무사평화할 때 뿐이요 참말 위급해지면 제아무리 학식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도 사주(四柱) 관상을 보고 점을 치고 남몰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다. 「무심론자도 한 발짝에는 발을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하 는 말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다.

그러나 사업이 잘된다고 천 하 쾌락이라고 풍다고 흥흥한 는 모른채하다가 곤란을 당하 고 위급한 일을 당하여 마르 소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은 무뎠하고 고약한 인간이라고 할수 있다.

「노회는 의회와(하나님)을 맞붙어 찾은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마리고 불이란 자는 그 생각을 마리고 의회와 제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회 의 의지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구약 이사야 五五章 六七節)

그동안 예배당수리로 돈코를 써없이 바쁘게 지낸 결과 오 늘까지 대략 마쳤는데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의 일의 공과와 공을 다 마쳐서 마음에 되는 대로 하고나니 그저 시원하고 감격한 심정뿐이었다 이것이 주께서 주신 찬양을 믿고 앞으로 더욱 힘차 이 길을 걸을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진해 S생記)

本國教會消息

鎮海監理教會發展



진해감리교회 신도 열동

진해는 일제시대의 해군요역 지대로 우리 한국사람은 한집도 없었던 곳이었 옛날에 충 무공시대는 옥포라고 하여 거 복선으로 왜적들 쳐들쳐는 한 산섬도 멀지 아니하다 지금은 우리「해군유제부」가 있고 해군 각요기관이 있어서 또한 해 군의 진해가 되었다 그뒤에 육군과 공군의 교육기관이 이곳에 세워졌고 우리나라의 중 많이 모이게되니 그들을 정신 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큰 책임이 되었다 더욱 해방 후에 미군대가 점령하면서 우리 동포가 들어간 살게되므로 감 자기 큰 시가지를 이루자 우 리해군의 후원을 받아 곧 장 로교회에 생겼는데 처음 교회 를 세운데는 이악신 복사의 공로가 많았다 그후에 그는 「희망원」고아원을 경영하게 되 고 교회는 상해에서 돌아온 김경도목사가 보게되고 그와 이해동장로의 노력으로 아담한 예배당이 신축되었다.

사변후에 해군장교의 가족과 친척으로 피난해오는 이들이 많으므로 교인이 늘어서 세 당도 증게되었다 사변이 계속 되므로 날마다 새벽기도가 계속되었다.

마산중앙(갈리)교회에서 이곳으로 이사해온 교우가 몇집 있었으므로 중앙교회에서는 전영택목사의 서랑인 전태홍씨 사택에서 예배를 드림을 시작하였고 마침 전목사님이 피난와서 그 다님당에서 지내게되었으므로 열심으로 모는 김성기씨도 부

고 위급한 일을 당하여 마르 소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은 무뎠하고 고약한 인간이라고 할수 있다.

「노회는 의회와(하나님)을 맞붙어 찾은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마리고 불이란 자는 그 생각을 마리고 의회와 제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회 의 의지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구약 이사야 五五章 六七節)

그동안 예배당수리로 돈코를 써없이 바쁘게 지낸 결과 오 늘까지 대략 마쳤는데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의 일의 공과와 공을 다 마쳐서 마음에 되는 대로 하고나니 그저 시원하고 감격한 심정뿐이었다 이것이 주께서 주신 찬양을 믿고 앞으로 더욱 힘차 이 길을 걸을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진해 S생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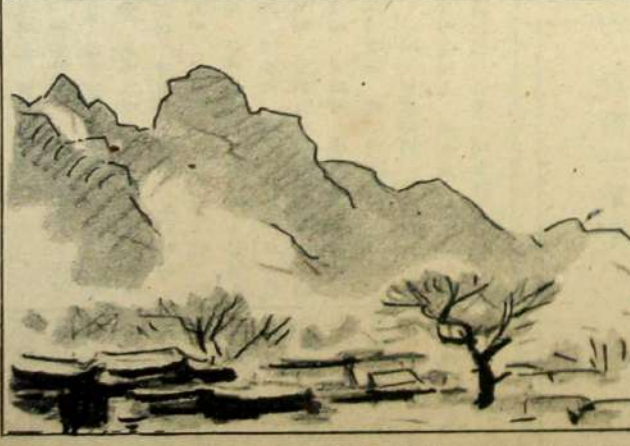
주는 사람

자가 위에서 그 줄을 붙들 고 있으면 그 줄을 붙들고 내려가지요 그렇지 않으면 '숨어'했다'고 한다.

우리 생명의 이 세상의 모든 일의 근본을 붙들고 있는이는 하나님이니나 우리 는 믿고 살고 믿고 일할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믿는게 있어야 된다.

예배를 인도하고 심방을 하여 교회를 시작하였고 그후에 그 가족이 와서 그후인파 인천지 방에서 시무하는 유기준여전도 사와 열심심방하여 날로 교우 가 늘게되니 예배당소가 좁으 므로 본래체육회에서 쓰든 읍 소유의 공헌건물을 빌기로 교 성한 결과 다행이 승락되었으 나 이미 들어서 공장으로 쓰 는 사람이 나가자 아니하므로 곤란을 겪다가 마침 다른집을 사주어서 나가게되고 예배당문 제는 해결되었다.

그동안 해군에서 일모는 송 홍국목사가 많이 도왔고 이만 영목사가 정식으로 임명되어 예배당수리에 수고하는바 재작 년 연회에 이목사는 부산세일 교회로 전임되고 한태유목사가 임명되어 열심심방한 결과 교 인이 날로 늘어갔다. 전영택 목사는 일본으로가고 유기준전 도사와 그 자제로 유사일을 부



水愉里와北漢山
아름다운 그 풍경
아름답게 매마른
당의 靜속한 자
래 속에 잔잔
은빛과도 같이
느껴진다.

말하자면 그 풍
경은 바위에 신
비로운 빛을 던
져 현대에 빛
있으면서도 한
옛날의 풍을
못 안고 있는 것
같이도 느끼
게도 하는바가
있어 보인다.

公升里와 北漢山

무엇이무게있는 사람을만드는가 (上)

張利郁

우리가 흔히 어떤사람에게 대하여 그사람 참말로 무게가 있어보인다 하는 印象을 가지게되는것은 첫째로 그는 말이 적고 또 그하는 모든일에 犧牲과根氣가 있어서 그저 平素하다라는것 그리고 또 喜怒哀樂의 感情表現가 그렇게 平穩하여서 抑揚이 激甚하지않다는 것들이 아닌가합니다. 사실에 있어서 이러한 면도 喜정은 대 체로 무게있는 人格者에게서 自然히 나타나는데 表現이라고 말할수있을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前面에 나타나는 이러한것만으 로서는 참으로 무게있는 사람 만들수는 없는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자는 이 무게있는 人格을 構成하는 本質의內容을 도모지 가지지못한 사람으로서는 그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行動이 느릿느릿한 다던지 혹은 어떤感情의 表現가 극히 部分的하다던지 해서 일론보아서는 이사람이야말로 무손內容이 着實한 사람인가보다 하고 印象을 받을수도 있기에문이 올시다.事實 속이 명 부여서 世上事理를 도모지 判斷할수도 모르고 또 글로나

말로서 自己를 表現할만한 能力이 없고 또 天賦의 才力이 著각이 아주 乏한가나 대로는 醜陋이 되어서 喜惡과 愛憎이 모두가 恰當하게 되는 사람도 대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무게있는 人格者의 眞面目을 보일수있을것입니다. 그런으로 眞正한意味에 있어서의 무게있는 人格을 養成하는것은 그 어느사람의 外面에 나타나는데 어떤表現보다도 그 사람의 素性에 있다고 말할수있는 어떠한 힘(力)이라고 생각 하는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힘이 되는가 혹은 이러한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는것이 이사람이 지금 말슴드리려고 하는것입니다.

첫째로 말슴드릴것은 原理와 原則을 알고 捕捉하고 또 原理原則을 依支해서 사는것이를 다. 이 原理나 原則이나 하는것은 이 모든 음적이고 변하고 하는 現狀속에서 언제나 변하지 않고 고준한 一貫하여있는 眞理를 가라하는것입니다. 우리가 自然界를 장간 살펴볼때 가령 春夏秋冬이 間斷없이 박고이고 주야가 실재없이 서로

本國新聞論調

捕虜送還의 新原則 (1)

(東亞日報에서)

韓國의 戰交涉에 關係하여 戰爭捕虜의 概念과 그 送還問題에 새로운 則이 形成되어간다는것은 文明社會의 進步에 劃期的인事實이라고할수있다.

제네바協定은 一九二九年에 第一次大戰의 經驗에 根據하여 戰爭捕虜의 人道的待遇에 關한 國際協約으로 成立되었고 一九四九年에는 第二次大戰의 經驗을 汲로하여 修正을 加하였던것이 다. 今番의 韓國戰爭의 經驗은 前記보다가 새로운 定義와 새로운 待遇方法을 追加修正할必要를 發生케하였고 그 原則은 今番 유엔總會의 公決로서 部分的이나나 明료하게되었고 또는 文明社會의 對多數國家의 合意

를 示해된것이다.

제네바協定 第一百八條에 依하면「戰爭捕虜는 戰國行爲終了以後 送還되지 放送還된다」고 하였고 同協定第七條에 依하면「戰爭捕虜는 어떤境우에라도 本協定 또는 前案에 指示된 特別協定에 規定된 權利의 全部 또는 一部를 포기할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中世紀에 있어서 勝戰國의 戰爭捕虜를 自國에 留置하여 이를 노예로 使役하는等의 非人道的인 習慣을 禁止한 것이다 그뿐만아니라 中世紀野蠻帝國의 再版인 蘇聯과 같은 나라는 正當한權利가 保障되어 있는 戰爭捕虜를 強迫恐嚇하여

自己의 祖國을 배반한다고 聲言케하거나 또는 雇傭作으로 그들이 送還을 不願한다고 世界를 기만하여 捕虜를 強制的 留하고 노예化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規定한것이다.

이文明에 依하여 모든自由國家들은 第二次大戰後 遲滯없이 모든 戰爭捕虜를 放送還하였 다. 그러나 蘇聯과 中共은 多數의 戰爭捕虜를 送還하지아니하고 強迫勞役에 從事케하였고 現在도 그一部를 強制的 留하고 있는 것이다. 이點에서 蘇聯과 中共은 제네바協定違反의 現行犯이다. 그들이 韓國休戰問題에 있어서 제네바協定을 云云하는것은 實로 欺反尙장도 甚한것이랄할수있다

韓國休戰에 關한「유엔」討議에 있어서 蘇聯側을 休戰과 同時에 捕虜交還問題를 十一個國委員會에 附議하자고 提案하였고

印度는 捕虜를 中立地帶에 일 단 보내어 四個國委員會에서 處理케하고 거기서 處理가 못 되는때는 「유엔」으로하여금 處理케 하자고하였다.

蘇聯의 提案은 修改를當하고 印度提案이 壓迫의 手段으로 採擇되었거니와 雙方의 提案이다 戰爭捕虜를「遲滯없이」送還해야되 다는 文字의 規定을 이미 포棄하고있다는것은 注目할必要가 있는것이다. 이것은 곧 一韓國戰爭이 民族國家間의戰爭이 아니요 自由陣營對노예陣營間의 超民族的 戰爭이라는것과 二또는 우리했던바와같이 蘇聯의 支配者群이 領導하는 새로운 侵略主義가 中世紀의 野蠻帝國以上의 野蠻性을 띠고있다는 新事態를 全世界가 明白히 認識함에서 結論된 새로운原則에至할 첫번째이다.

첫째로 第七條의「送還」이런



詩

현해탄 金

기적이 일어나다
하얀 손이 나뉘었다
푸른 연기 사라졌다

창공엔 친구를
갈게기 때 울며 불며
안타까이 말아 갑니다

배머리 불결 위에
영기었던 나무가지
좌로 우로 갈라집니다

하나밖에 남지않은 봉우
포켓속에서 켜집니다

한조각
은이아 「리
「오빠도」
「사람」도
푸른
창해는
갈매기
오오 나
언제
마리

따르고 또 밋들이 달을따라서
어김없이 들고나고 하는것이
네나오날이나 아모 다른것이
없는것은 이森羅萬象의 宇宙의
現狀의 그속에는 언저라도 변
하지않는 自然法則이 있어서
이 모든事實을 支配하기때문
이을시다. 우리 사람의 生活도
또한 마음가지로서 萬一 우리
가 변하지도않고 해지도 아니
하는 어떤 眞理의原則을 依支
해서살고 또 그속에서 산다고
할것같은오날 世上에서 너
에도 흔히 볼수있는것과같이
主義主張이라는것이 조변적에한
다든지 또그거위가 左나右나

해서 어떻게 날아가다가 어찌
나가지 버려지려는지를 도모지
알수없는 森羅萬象은 人格者가
되지않을것이옳다.

이제 어느會社나 어느大學을
드러서 말한다면 社會 某社
長이나 總長의職은 原則的의것
이요 또 그러니만큼 변하거나
근처지는 生命이 아니입니다.
그러나 某社長이나 總長인 金
某나 李家라는 自然人은 一時
的의것이요 또 그러니만큼 변
하는것입니다. 그런으로 길
변하지않고 언제나 存
在하는 天職을 존경하고 또天
職에대하여 忠誠할것을 모르고

羸星

॥ ५ ॥

५५ ५५

대바도 지나니

조차
떨어집니다

의 불단서에

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대로
그런사람이 어느한때에 있어서
노상 紳士답게 무슨行動을 한
다고 假定할지라도 그가萬一이
原理과原理을 찾지 못하고서 한
것이라고 할것 같으면 그런行動
이 언제나 繼續해서 있을것을
보증할수없는 無價値한 一時的
의것일것입니다. 그런코로 이
原理原則을 붙들고르고 또 이
것을 찾으려고도 하지않는사람
은 그때그때 그當하는일과
우에 따라서 또는 對하는 사
람의 地位와權限에 따라서 논
변하고 달랠질수밖에 없으니나
참 그의 무지는 시대상에 초
래내려가고있는 모태말갈을뜻하
을시다.

그다음 둘째로 말슴드릴것은
自己가 가진 實力에 대한
自信이올시다. 무제있지 아니
고 또 무제있지 음지일수있는
個人이나 團體는 實力있는 個
人이요 團體인것입니다. 이사람
이 지금 이렇게 무제가있다
없다는말을을 드리면서 한가
지 아조 비근한 무었을 연상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
린아이들이 돈이 그 어머니자
통에 있어서 들고있는 바합이
잔뜩 드러 뵈워져있는 고무

風船이 그것을 운다. 이 높은
어떻게나 거대한 물건인지 언
제라도 온 날아서 하늘로 올
라갈 해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그한것을 실로 매여서 아이
이 손에 잡고있는것이운다.
그래서 어찌나가 이것이 그
이온에서 놓이게될때에는 定處
도 方向도없이 그냥그냥 마
루는대로 날아만 가는것이다
그러고 그다음은 이것과는 正
反對로 요를 우리가 新羅에서
흔히 듣고로고하는 峽谷로를
생각합니다. 이 峽谷로를
높달란한 力을 가진 火
藥이거나 其他무슨 化學藥品의
잔류 積쳐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峽谷로가 崩괴되
기전에 땅속에 녹여있는 그모
습을 볼것같으면 지금 말한
그 교무風船같이 우으로 나
올라가며는 아모 때도나 정
을 찾아볼수없는것입니다. 그
적막하게 은은히 固定되어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아는것과같이 일단 그
속에 갇쳐되어있는 힘이 폭발
할수있도록 어떤 장치를 다
놓대 그 날라올라가는 氣勢
를라운것입니다.

(以下次號 계속)

한가파것과 그 속의 물과
보이는 일이지요.
한동안 이의중심의 다
간 위에는 금강 물에서 요동
을 보내느니 천조물자를 보내
느니 가장 표를 부리니
요새 자기네 어선 몇척이 우
리 근해를 침범했다가 잡히고
또 어부가 하나 죽었다고 한
국의 성의가 의심스럽다고 한
면서 매도가 돌변하니 과연
그야말로 왜인이요조선인들이지
나의 천황하에 살면서 무언
도아주다르 하지도 말고 어의
에대함 금강 매도가 변해서

設計와監督
新生建築

本人의 衛生의
爲하기위하여 睡眠
에 注意하고저 하
는 爲한 修養하심
도 運轉하리 주시기

鐵 釘

설계事務所

아세아에서 우리 한국과 일
본만이라도 할수있으면 중국과
지라도) 서로 그야말로 좋은
친구가 되어서 악질제가 없이
각자의 좋고 단단히 손을 잡
는 것이요

(二面七段에續載)

右黃王宮 松鶴洞 一와 一
山市峨嵋洞 二街三十二의
海邑松鶴洞 一の 一

K형
 오래간만에 동명이야기를
 니다 하도 속상하고 답답해서
 토 북을 들었소이다.
 그때 그때의 일어나는 사건
 이나 되어지는 일로 따히 마
 음에 혼을림을 받지말자고 하
 긴마는 자연히 보고 들은일에
 여황을 받는것이 인간과 일의
 가보의다
 요새는 일본에 있는 우리하
 년아동의 입학문제도 참말로
 답답한 일이 있답니다 일본
 국자는 사정을 따히 알면서도
 우리의아이를 살짝 빼놓고 아
 니 모른다고하고 그들을 타
 서 조련계중(공산당계중)에서
 자기네 학교로 보내라는 움직
 이를 보내고 또 정신없이 그
 학교로 보내는 사람도있고 총
 협있는 사람은 일본학교에 포
 설을 해서 넣고 그런 형편인
 한일회담관계인지 우리대

표부에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인단에서만 머리를 알코 애를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정부당국에서도 이런 긴급한
일에는 특별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데 잠정하고 있는것도 딱
하거니와 일본정부 당국에서도
빨갱이들이 하는일을 내버려두는
대기보다 도아주고 길러두는
셈이니 그 심사를 알수없지요
인단에서도 하는일이 약하고
「감람디」구요 이래가지고 장
차 어찌할셈인지 한편 조국에
서는 내 형제가 적군을 상대
로 피를 흘리고 있는때 외지라
고 이렇게 완만해가지고 되겠
어요.

K형

도대체 일본사람들이 아무리
섬나라 사람들이라도 좀 도량
을 크게 가지고 자기네 손님
인 우리교포를 생각했으면 「의
국인」이라고 고령제 발발하게

大學院
入學試驗
願書締切

☆願書請求 東京
郵便要冊目

一・三年 補欠數人
 (申請中) (學外에서의志願書도받음)
 二月二十四日—二十七日
 二月二十日限
 都三鷹市牟礼
 東京神學大學事務室
 書神學校
 正規神學校課定倉歷修習
 三〇名 願書受付
 三月末日迄
 若干名 入學試驗
 四月六・七日
 P・S 叫呼—
 金井為一郎
 ☆東京都新宿區下落合一ノ五〇〇番
 電話、落合長崎(95)三三六〇番

東京通信

田榮澤

東京神學大學

學部	一、二、三年	三十五名 補欠數人
----	--------	--------------

大學院
(申請中)
(學外에서의志願書도받을)

▼入學試驗	三月二十四日—二十七日
▼願書締切	三月二十日限

☆ 願書請求 東京都三鷹市牟礼
郵便要冊 東京神學大學事務室

日本聖書神學校

▼夜間授業。是正規神學校課定。並歷修。

願書受付

▼予科一年三〇名 三月末日迄
▼本科一年若干名 入學試験
四月六・七日

理事長 P・S 金井 為一郎

☆願書請求☆
東京都新宿区下落合一ノ五〇〇番
電話、落合長崎(95)三三六〇番
郵便要冊